지역 소식통

흥덕 문화복지관 개관

'시니어카페', '작은도서관' 등 고창군 흥덕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할 문화복지관이 19일 개관했다.

이날 오전 열린 개관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농어촌공사고창지사장, 여러 군민 등이 참석했다.

문화복지관은 흥덕면 흥덕리에 모두 46억원(국비 32억원, 지방비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련됐다. 부지면적 3590㎡,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2018년 7월 착공해 2년여 만에 준공됐다.

1층에는 체력단련실, 시니어카페, 가온누리작은도서관 등이 있다. 2층에는 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 무용연습실, 강의실, 휴게실이 자리잡았다.

흥덕문화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이 운동과 독서를 즐기며 건강하고 밝은 공동체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어르신·청소년들이 함께하면서 세대간 소통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0 전북트래블마트 고창군 관광명소 홍보

전북 고창군이 지난 18일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20 전북트래블마트'에 참가해 '힐링·치유관광지 고창'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전북트래블마트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과 관광 관련업계,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했다. 글로벌청년 스마트관광 교류회와 인플루언서 SNS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창군은 국내외 여행업계, 마이스업계, 관광벤처,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고창군 관광책자, 기념품을 나눠줬다.

고창은 코로나19시대 선운산, 운곡람사르습지, 고창읍성 맹종죽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동호해수욕장 모래찜질, 석정온천 스파 등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명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예산확보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종횡무진 현안사업 증액 · 반영 등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한창인 이때, 국회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품행정을 펼치고 있다.

2021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을 10여일 앞둔 지금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부안군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11월 19일, 권익현 부안군수는 송갑석 의원, 박홍근 국회 예결위 간사, 신영대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과 '직소천 자동차야영장 확대조성' 등 2021년 부안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국회단계 증액 및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야당의원인 박진의원을 방문하여 부안군 현안사업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무엇보다 2021년 국가예산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나 국회단계에서 증액된 부안군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1월 4일~5일과 11월 12일에 이어 11월에만 벌써 세 번째 국회 방문이다. 부안군의 이 같은 열정에 국회도 부안군 증액예산에 대해 파란불이 켜진 상태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국회 예산확보 활동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재하는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새만금 그린뉴딜관련 관계부처의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예산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군수의 책무인 만큼,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진서면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곰소항 입구에 위치한 범섬 공원 산책로 정비에 힘쓰고 있다.

"걷고 싶어라"… 부안 진서면, 범섬 산책로 재정비

부안 진서면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곰소항 입구에 위치한 범섬 공원 산책로 정비에 힘쓰고 있다.

과거 범섬 산책로는 무성히 자라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았으나, 이번 범섬 공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깔끔해진 모습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탁 트인 범섬 공원에 빨갛게 단풍이 든 가로수 풍경을 본 진서 주민들은 경치가 좋아 산책하기 좋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를 통해 범섬 산책로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다.

김문갑 진서면장은 "앞으로도 범섬 공원 뿐 아니라, 마을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쓸 것이며, 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 조치 및 안전관리에 신경쓸 것"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강화

감사 · 징계 면책, 소송 지원 등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다.

하지만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고소, 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전 공무원이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공무원이 복지부동 자세를 버리고 각종 민원 현안에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실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읍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했고, 적극 행정으로 인한 감사나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정읍시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적극 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 공무원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정읍시 적극 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제정했다.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 민사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적극 행정 공무원은 시가 책임지고 보호키로 했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 행정을 더욱 독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북도에서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년 묵은 인도 점유 고질 민원 해결'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88세대 예비 입주자 모집

12월 1일부터 읍 · 면 · 동 접수

정읍시가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연지동 258-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실버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세대 내 편의시설과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공공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7,821㎡ 규모로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갖춰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된다. 특히, 지상 1층 복지관은 복지·여가·건강 관련 시설을 한데 모아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여 편안한 노후를 돕는다. 현재 공정률 83%를 넘긴 공공실버주택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한창이며, 4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총 88가구 전용면적 26㎡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주민이 1순위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연지동 일원에 건립 중인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공실버주택.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실적 중간점검

정읍시,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정읍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자체 합동 평가 정량평가 52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실적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곽승기 부시장 주재로 부서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해당 지표 부서장의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 상반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부진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분석과 정기적인 진행 상황 점검, 목표 달성 우수지표에 대한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도와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곽 부시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부진지표에 대한 직원들의 정확한 업무 숙지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합동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 주요 시책 등을 중앙부처와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국정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시는 2019년 실적평가에서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 5천5백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